

現代社會에서 看護員의 역할은 중차대하다. 인류의 건강과 복지증진의 향상을 위한 전문직 간호원으로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우리 회원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이 난을 꾸며 학교사회, 산업장, 병원사회, 군사화로 이어져 나간다.

<편집자 주>

學校社會에서

홍 순 철

<본회출판홍보위원·배화여고 양호교사>

1970年 후반기의 우리나라 社會는 급속히 科學化하고 産業化하는 느낌이다. 學校라는 지역 社會에 처하는 한 사람의 學校 간호원(양호교사)으로서 보고 느끼는 바는 너무도 많다.

學校社會는 지극히 제한된 사람들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사회이므로 늘 같은 학생들, 같은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큰 변화와 이동이 없이 영위되는, 조금은 타성에 의하여 굴러가는 듯한 그리고 다분히 보수적인 면을 띠는 곳이다.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Benzamin Franklin(美國 정치가. 물리학자 1706~1790)의 말처럼 敎育을 二元論的인 것으로 본다면 “실용적”인 것과 “장식적”인 것을 배워야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敎育은 새로운 것과 낡은 것의 통합(Integrate)된 것이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一般的으로 조금은 낡은 것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이 전통깊은 私立 中高等學校의 현상이고 속성인 것 같다.

낡은 것은 낡은 것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격동하는 사회변천 속에서 이제까지 지녔던 습성, 가치 등이 저만큼 앞서 간 새로운 것과의 Gap을 형성하기 때문에 새것과 낡은 것 사이에서 갈등을 이끄는 요인(Occasion)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관념들은 科學분야에선 퇴보의 의미를 내포한다.

學校간호원(양호교사)은 어느과목 선생님보다 더욱 나태해질 가능성도 있고 더욱 발전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Flanklin의 二元論的인 敎育에서 보면 간호학은 가장 실용적인 부분에 속하며, 새로운 것을 받아드려 응용하는 과학이고 실용과학이어야 하기에 발전하는 科學과 보조를 함께 한다면 발전하는 것이겠고 아니면 퇴보의 현상을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科學은 얼마나 급속히 발전하는지 대학 입학시에 배운 지식이 졸업할 때엔 이미 낡은 것으로 변하는 현대에 산다. 그러므로 科學敎育에서 특별한 기술을 敎育하기 보다 본인이 응용할 수 있는 一般的인 개념(Concepts) 원리(Principle) 구조(Structure)를 가르칠 것을 Jerome S. Bruner(Harvard University Ph. D. 1941)는 敎育의 과정(The process of Education)에서 말하고 있는 이는 평생 계속敎育속에 사는 Continual Education에 관계되는 理論에 속한다.

學校간호원은 學生을 직접 敎育하는 기회는 적지만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生活을 통하여 혹은 강연을 통하여 시행하는 기회가 많다. 이러한 때에 낡은 것을 가르침은 과학분야에 처한 사람으로서 조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學校에서의 보건사업을 주로 기술적인 면으로만 생각하기 쉬우나 그것에 끌려서는 아니될 것

같다.

「科學教育方法論」에서 趙慶哲 교수는 기술(tchniuc)은, 「실천 생활에 있어서 객관적 법칙을 응용한 수단을 통하여 어떤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라 풀이하고 있는데, 바라기는 學校保健을 우리가 경험하는 世界의 특수영역에서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법칙과 原理를 구하고 조직된 체계를 세워 설정된 것을 시험하고 평가하는 Applied Science, Practical Science화하는 것이 연구하며 生活하는 nurse로서의 자세일 것 같다.

心理學的으로 人間은 兩向性(Ambivalent)의 모순을 지닐 수 있는 存在이고 더욱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심리적 이유(Psychological Weaning)의 시기에 접어들어 부모와 스승에게 반항하면서 독립심을 기르는 마음과 의뢰하고 싶은 엇갈린 Ambivalent의 갈등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자극은 Stress로 이따금씩 신체적 현상으로 Psychosomatic한 증세를 일으키게 한다.

부모님의 학생에 대한 기대와 학생능력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가, 본인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전혀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하여 늘 머리가 아프고 신경쇠약증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양호실을 찾는 학생과의 대화중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현상들이다.

이런 때엔 그저 마음대로 어려움을 이야기 하게 함으로 듣는것으로서 한알의 약이 없이 밝은 얼굴로 돌아가게 하는 때가 있다.

몸이 약하다든가 성적이 나쁘다든가 社會에 적응능력이 부족하여 어떤 의미에서 뒤 처지는 backward의 학생들과 의사소통(Communication) 하는 가운데 은연중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개의 경우 양호실을 찾는 학생을 대할 때 직관을 통하여 視診(Inspection)하게 되고 Skin Color 그의 표정을 살핀다. 그리고 그의 needs를 듣는다. 그리고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Nursing diagnosis를 하고 의사에게 의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이곳에서 해결지을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여 조치한다. 담임선생과 학부형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연락하고 때로는 교의, 교장, 각 보건기관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橋梁) 역할을 함으로 사업진행을 한다.

날마다 직원회의에 참석하여 학교의 움직임을 알도록 하고 연간 보건계획, 월간 보건계획, 주간 계획을 작성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발표함으로써 동료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도록 한다.

실제로 學校 간호원은 Nurse Practitioner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다 차원 높은 이상적인 Nursing care를 하기 위하여 계속 배우고 연구하는 자세로 Continual education을 스스로 행하여 실생활에 적용시키고 있다.

학교간호의 목적은 보다 좋은 수업분위기 조성과 질병예방을 토대로 한 건강유지(Health protection), 건강증진(Health promotion)과 소수의 질병인의 결함교정(Correction of Deffects)에 든다.

학교간호원이 행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1. 건강교육(Health Education)
2. 건강상담(Health Consultation)
3. 신체검사(Health Examination) 계획 및 실시(체격검사, 체질검사)
4. 건강관찰(Health Observation)
5. 응급처치(Emergency Care)
6. 기생충 관리(Parasite Control)
7. 결핵 관리(Tuberculosis Control)
8. 전염병 관리(Communicable Disease Control)
9. 건강 및 질병통계 작성보고(Recording and Reporting)
10. 학교 환경위생(School Enviromental Sanitation)
 - ① 교사 및 교실의 채광 조명(Illumination) 환기 난방(Ventilation and Heating)
 - ② 음료수(Drinking water)
 - ③ 안전 관리(Safety Control)
11. 정신보건(Mental Health)에도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한다.

學生들의 건강문제를 다루면서 A.H. Maslow의 人間의 욕구층을 알고 있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는 人間의 욕구의 순위를 규정하고 욕구의 내용을 5가지 단계로 구분하여 이론을 전개시킨다. 人間의 욕구는 低次欲求로부터 시작하여 高次欲永의 순위에 따라 충족되지 않은 욕구는 동기부여의 대상이 됨을 말한다. 그의 5가지 욕구층은 다음과 같다.

- 제 1차 욕구. 기본적 생리적 욕구
(Basic Physiological Needs)
- 제 2차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Safety and Security)
- 제 3차 욕구. 소속감 및 사회적 욕구
(Belonging and Social Activity)
- 제 4차 욕구. 존경 및 신분의 욕구
(Esteem and Status)
- 제 5차 욕구. 자기 실현 성취 욕구
(Self-realization and Fulfillment)

이상의 욕구중 충족되지 않은 욕구중 최저 욕구를 충족시켜 줄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동기유발의 요인이 됨을 말한다.

學校에서의 우리가 취급하는 학생들은 개개 1차 욕구인 아픔에 대한 호소로부터 시작하여 보호를 원하는 안전욕구인 2차 욕구와 3차 욕구인 소속감 및 사회적 욕구, 나아가서는 타인에게서 인정을 받고 싶은 4차욕구인 신분의 욕구부족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안고 있음을 본다.

學校保健의 目的은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건강인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는 것과 질병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함에 있고 또 이상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본다. 다수의 건강인의 문제는 질병문제 보다는 심리문제의 비중이 큼으로 心理學者 Maslow의 理論은 많은 人間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Decision Making)가 수월하다.

學校간호원의 역할(Role)이 두드러지게 노출되

는 일은 아니어도 없어서는 아니되는 꼭 필요한 역할인 것만은 사실이다.

풀이켜 보던 간호학을 전공하고 역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일을 하는 것 같다. 간호원의 대부분은 실질적이고 이치적인 과학도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으나 지극히 섬세한 감정을 함께 지닌 理想主義者들도 많음을 느낀다.

생각해 보면 「도와준다」는 것은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갖는 여유있는 사치하기도 한 말처럼 들리나 사실 간호학은 「도와주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하여도 좋을 만큼 타인 위주의 일일이다.

타들어 가는 촛불의 소모처럼 어려움의 증화는 빛을 내어 이웃을 도울 계기를 마련한다.

발전하는 사회와 함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우리이기 위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명호, 學校保健. 서울, 수문사, 1967. 8
2. 전산초, 임상간호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7
3. J.S. Bruner, (李麗雨 역) 敎育의 過程. 서울, 배영사, 1977. 4
4. R.J. Havighurst, (김재은 역) 人間發達과 敎育. 배영사, 1963. 서울 중앙교육연구소편
5. 이선자, 양호교사의 역할. 대한간호, 1975. 제14권 1호 pp. 32~33.

<신간안내>

상용약 편람 및 간호

강경자 편저 <4×6배판, 총 232페이지·全面음셀>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값 2,800원